

제 297호 · 2015년 2월 25일
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

# KMI

## 국제물류위클리

K O R E A   M A R I T I M E   I N S T I T U T E

### | CONTENTS |

#### 글로벌물류이슈

1. DSV사의 세계화 전략

#### 물류정책·사업동향

1. '15년도 아시아 e-commerce 시장의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는 물류 인프라
2. 일본 우정(Janpan Post), 호주 물류기업 Toll 인수 발표
3. DHL, 수에즈운하 확장 계기로 이집트 투자 확대계획
4. CSCL 및 MCC Transport, 중-미얀마 직기항 서비스 개시

#### 물류시장동향

1. 몰타항, 2M 얼라이언스의 지중해 주요 허브항으로 선정
2. 펠릭스토우항 확장에 200백만 달러 투자 예정

#### 공지사항

1. 청사 이전으로 인한 휴간공지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 
KOREA MARITIME INSTITUTE

## 글로벌물류이슈

## □ DSV사의 세계화 전략

- 1976년 덴마크에서 설립된 DSV는 세계 최대의 3자 물류기업 중 하나로, 전 세계 75개국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, 23,000명의 직원이 근무함
  - Armstrong&Associates에 따르면, 2013년 DSV는 세계 50대 3PL 기업 순위에서 매출액 기준 7위를 기록함<sup>1)</sup>
  - 설립 이후부터 꾸준한 M&A를 통해 네트워크 및 사업 분야를 확대해 왔으며, 특히 2008년 프랑스의 글로벌 포워딩 기업 ABX Logistics를 인수함으로써 포워딩 사업부분을 크게 확대했고, 남유럽에서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함
- DSV의 사업부문은 크게 '해운·항공 포워딩(Air&Sea)', '육상운송(Road)', '물류 솔루션(Solutions)'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지며, 매출액 기준 '육상운송'이 가장 큰 사업부문임
  - '해운·항공 포워딩'도 DSV의 핵심사업 영역으로, 2014년 해상화물 취급량은 83.5만 TEU, 항공 화물취급량은 28.8만 톤에 달함
  - '물류솔루션' 부문에서는 통관서비스, 창고 보관 및 유통,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
  - DSV는 자산경량화(Asset-light)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, 자체 선박 및 화물기를 보유하지 않을 뿐 아니라, 육상운송에서도 소수의 자체 차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웃소싱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

## &lt; DSV의 비즈니스 모델 &gt;



자료 : DSV, 2014 Annual Report, 2015.02.

1) Armstrong&Associates, *Top 50 Global Third-Party Logistics Provider(3PL) List*, 2014.

- 2014년 DSV의 매출액은 485.8억 크로네(DDK, 약 74.6억 달러)로 전년대비 6.3% 증가했으며, 2009~2014년 연평균증가율은 6.1%를 기록함
- EBITDA<sup>2)</sup>는 31.5억 크로네(4.8억 달러)로 전년대비 3.0% 증가했으며, 마진율은 6.47%로 전년대비 약 0.2%p 감소함

< DSV 매출액 (백만 DDK)<sup>1)</sup> >

| 구분                | 2009년  | 2010년  | 2011년  | 2012년  | 2013년  | 2014년  | CAGR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
| 매출액               | 36,085 | 42,562 | 43,710 | 44,912 | 45,710 | 48,580 | 6.1% |
| EBITDA            | 2,239  | 2,721  | 2,975  | 3,074  | 3,052  | 3,145  | 7.0% |
| 마진율 <sup>2)</sup> | 6.20 % | 6.39 % | 6.81 % | 6.84 % | 6.68 % | 6.47%  |      |

주1) : 2015.02.17 환율 기준 1DDK=0.15USD.

주2) : (EBITDA/매출액)X100

자료 : DSV, 2014 Annual Report, 2015.02.

- 2014년 DSV의 육상운송 부문별 매출액은 241.7억 크로네로 총 매출액의 약 49.8%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2009년 53.8%에서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
- 반면 해운·항공 포워딩 부문이 DSV 총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9년의 38.8%에서 2014년 45.3%로 6.5%p 증가했으며, 육상운송 사업부문과 포워딩 부문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
- 해운항공 포워딩부문의 2009~2014년 매출액 연평균증가율은 9.5%로 육상운송, 물류솔루션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, 이는 다년간의 M&A에 의한 결과임
- 사업 부문별 최근 5년간의 평균 마진율은 물류솔루션이 8.12%, 해운항공 포워딩 7.48%, 육상운송 4.33%의 순으로 물류솔루션 부문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 들어 마진율이 다소 낮아짐

## &lt; DSV 부문별 매출액 (백만 DDK) &gt;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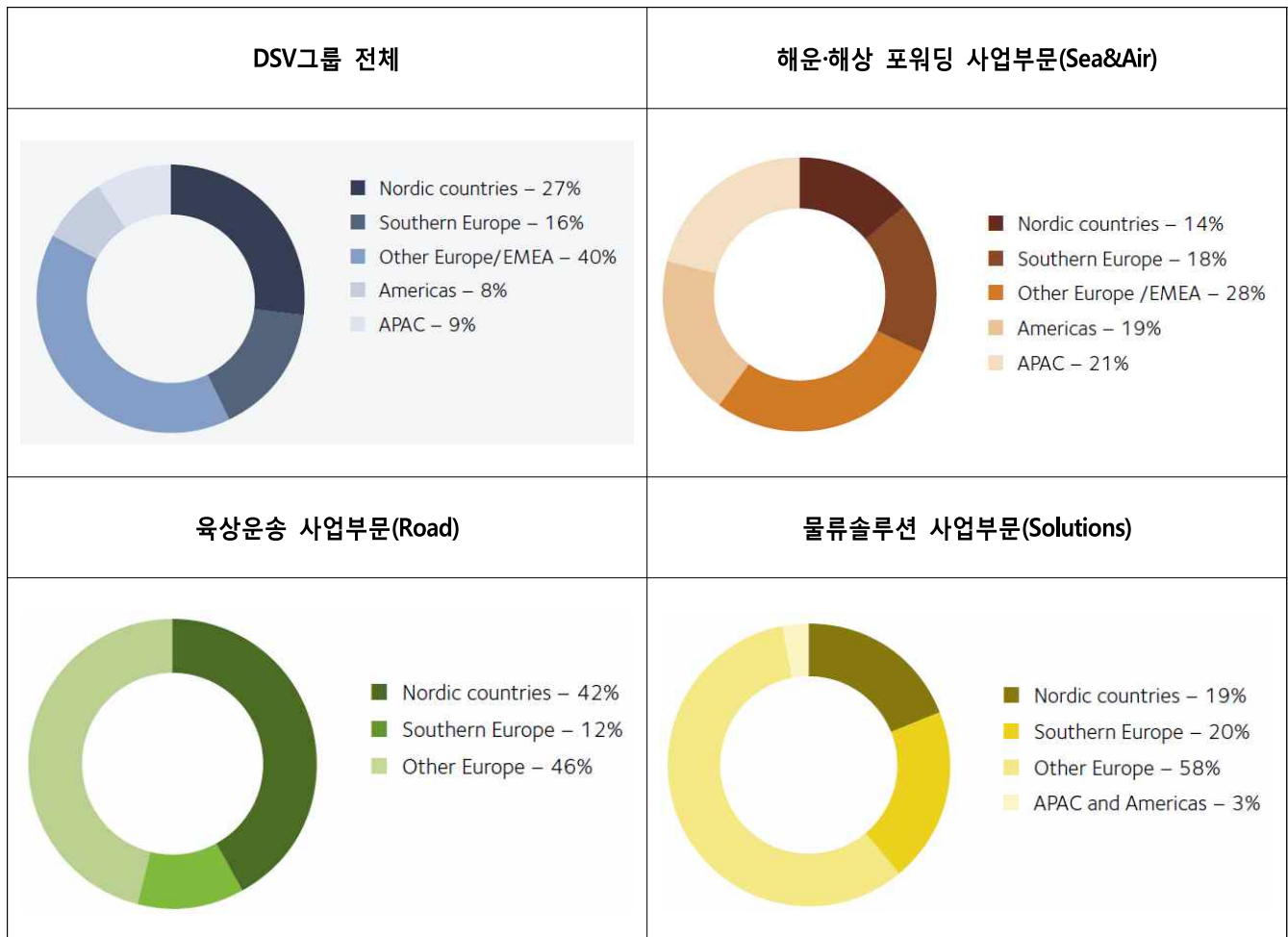
| 구분          |        | 2009년  | 2010년  | 2011년  | 2012년  | 2013년  | 2014년  | CAGR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
| 육상운송        | 매출액    | 19,408 | 21,103 | 22,641 | 22,654 | 23,117 | 24,169 | 4.5% |
|             | EBITDA | 772    | 933    | 988    | 1068   | 1040   | 969    | 4.7% |
|             | 마진율    | 4.0%   | 4.4%   | 4.4%   | 4.7%   | 4.5%   | 4.0%   |      |
| 해운항공<br>포워딩 | 매출액    | 13,994 | 19,404 | 18,926 | 19,855 | 20,195 | 22,001 | 9.5% |
|             | EBITDA | 1,040  | 1,339  | 1,487  | 1,546  | 1,498  | 1,648  | 9.6% |
|             | 마진율    | 7.4%   | 6.9%   | 7.9%   | 7.8%   | 7.4%   | 7.5%   |      |
| 물류<br>솔루션   | 매출액    | 4,775  | 4,861  | 5,009  | 5,181  | 5,470  | 5,729  | 3.7% |
|             | EBITDA | 404    | 412    | 436    | 395    | 424    | 436    | 1.5% |
|             | 마진율    | 8.5%   | 8.5%   | 8.7%   | 7.6%   | 7.8%   | 7.6%   |      |

자료 : DSV, 2014 Annual Report, 2015.06.

2) Earnings Before Interest, Taxes,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(법인세, 이자,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).

- 2014년 DSV 전체 매출의 83%가 유럽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유럽시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
  - 특히 DSV의 가장 큰 사업부문인 육상운송의 경우 매출의 100%가 유럽에서 발생되며, Ti의 "European Road Freight Transport 2014"에 따르면, DSV는 유럽 TOP 5의 육상운송기업임
  - 해운·해상 포워딩 부문의 글로벌화가 가장 두드러지며, 2012~2013년 미국, 멕시코, 브라질, 페루, 콜롬비아에 지사를 새로 설립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결과 미주(북미/남미)지역의 매출 비중이 2013년 16%에서 2014년 19%로 증가함
  - 최근 물류솔루션 부문의 해외 진출도 활발하여 2014년 태국 방콕, 중국 텐진, 독일 Krefeld 물류센터 등이 완공되었으며, 아시아-태평양 및 미주 지역 매출 비중이 전년대비 1%p 증가함

### < DSV 지역별 매출 비중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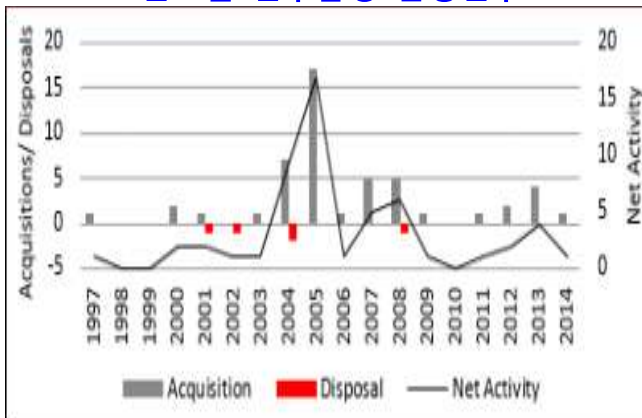


주 : EMEA=Europe, Middle East, Africa ; APAC=Asia Pacific.  
 자료 : DSV, 2014 Annual Report, 2015.0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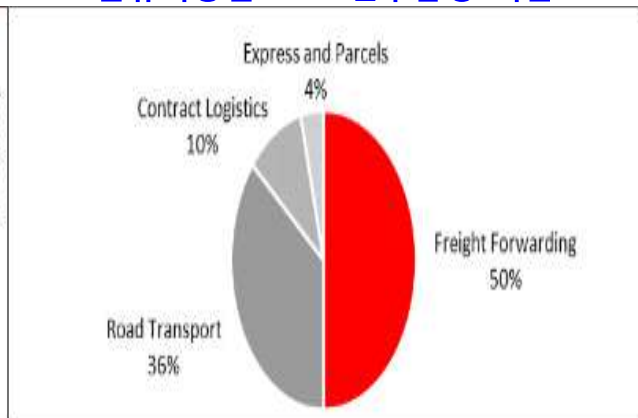
## □ 글로벌 진출 전략 1 : 공격적인 M&amp;A 통한 유럽시장 판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

- DSV는 유럽의 물류회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M&A를 한 회사 중 하나이며 유럽에서만 38개의 회사를 인수합병함
  - M&A 핵심전략은 화물 포워딩 및 계약물류로 확장 해나갈 수 있는 중소 도로 운송 회사를 인수하는 것임
  - DSV의 첫 인수합병은 1997년에 이루어 졌으며 2004~2005년 사이에 27건으로 가장 많은 M&A가 이루어 졌음
  - 물류시장으로는 화물 포워딩이 50%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도로운송은 36%로 두 분야만 합쳐 86%로 M&A의 대부분을 차지함

&lt;연도별 인수합병 발생건수&gt;



&lt;물류시장별 DSV 인수합병 비율&gt;



자료 : Transport Intelligence.

- DSV는 2011년까지 주로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M&A를 진행했으나 2012년 두바이를 기반으로 하는 Swift Freight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이머징마켓 시장에 진출함
  - Swift Freight는 운송 솔루션 전문업체로 아프리카, 중동 및 아시아의 15개 국가에 화물 포워딩 사무소 36개를 가지고 있음
  - 다른 이머징마켓으로 2012년 아르헨티나, 페루 및 칠레에 합자회사 형태로 인수합병을 진행하여 남미에 입지를 강하게 다짐
  - 장기적 관점에서 DSV는 유럽 사업을 북유럽 국가를 경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
  - 수익의 관점에서 아시아 태평양과 아메리카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DSV는 이 지역에서 사업을 확장 할 것임

## &lt; DSV의 기업인수 현황 &gt;

| 대상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도   | 업종      | 주요 화물 | 국가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Swift Grou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4 | 화물포워딩   |       | 남아공     |
| SBS World Holdings Ltd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3 | 화물포워딩   |       | 영국      |
| Ontime Logistics A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3 | 도로운송    |       | 노르웨이    |
| Seatrainers Grou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3 | 프로젝트 물류 |       | 덴마크     |
| Swift Freigh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 | 화물포워딩   |       | UAE     |
| AWT Cechofrach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 | 화물포워딩   |       | 체코공화국   |
| Wasa Logistic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1 | 프로젝트 물류 |       | 핀란드     |
| Norfolkline A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9 | 도로운송    |       | 스웨덴     |
| ABX Logistic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8 | 화물포워딩   |       | 오스트레일리아 |
| Waagan Transport Group A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8 | 도로운송    |       | 노르웨이    |
| ABX Logistic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8 | 화물포워딩   |       | 프랑스     |
| Termolin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8 | 도로운송    |       | 핀란드     |
| Roadferry Limit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8 | 도로운송    |       | 영국      |
| Country Logistics(PVT) Ltd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7 | 화물포워딩   |       | 파키스탄    |
| Leader Container Line International Limited                     | 2007 | 화물포워딩   |       | 뉴질랜드    |
| Campbell Freight Agencies Limited and Campbell Freight Agencies | 2007 | 화물포워딩   |       | 영국      |
| Active Freight Manag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7 | 화물포워딩   |       | UAE     |
| DFDS Transport(Bangladesh) Lt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7 | 화물포워딩   |       | 방글라데시   |
| Frans Maa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6 | 계약물류    |       | 네덜란드    |
| Hearing Air Carg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5 | 화물포워딩   |       | 독일      |
| JHJ Internationa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5 | 화물포워딩   |       | 중국      |

## □ 글로벌 진출 전략 2 : 자동차물류시장 확대

- DSV는 20년 이상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주요 물류회사임
  - 20개국에 50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유럽에 15곳의 대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50만 m<sup>2</sup>의 자동차 전용 창고를 운영하고 있음
  - 2013년 자동차 사업에서 5억 유로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전체 매출액의 약 10%를 차지함
  - DSV는 2020년까지 현 매출액의 두 배인 10억 유로 및 전체 사업의 20%를 달성하는 것을 전략 목표로 설정함
- 유럽은 DSV의 주요 시장이며 유럽대륙을 통해 자동차 고객사들과 장기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자 함
  - DSV는 기존의 계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end to end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
  - 이머징 마켓에도 유사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세움
  - DSV는 이머징 마켓에서의 입지가 약하기 때문에 2014년 Swift Freight 인수합병을 통해 미개발 시장에 대한 성장 발판을 마련함

- DSV의 고객사는 OEM사 60% 및 부품 공급업체 40%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서비스 파트는 OEM사 매출의 15%를 차지하지만 전년대비 50% 이상의 수익을 올림
- DSV의 자동차 관련 보관시설은 다음과 같음
  - 유럽에 가장 많은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머징 마켓 중 가장 성장세가 높은 아시아, 중동 및 아프리카에도 많은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음

#### <DSV 글로벌 자동차 관련 보관시설>



자료 : DSV, Transport Intelligence.

- DSV는 유럽 및 아프리카로부터 운송되는 GM(General Motors)의 부품은 물론 유럽(독일, 오스트리아, 영국 및 헝가리)뿐만 아니라 아시아, 아메리카 및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생산 시설 및 예비부품 센터의 제품을 운송함
  - 주문관리를 포함해 공급업체 관리 및 실물 인수도 과정인 배송 사슬을 담당하는 브레멘, 독일, 시카고 및 일리노이 소재 GM 제어센터를 DSV가 관리함
  - 2014년 10월 DSV는 남독일에서 볼보 공장이 있는 벨기에, 프랑스 및 스웨덴으로의 공급을 위한 운송 회사로 선정되었음

#### □ 글로벌 진출 전략 3 : 창고시설 운영 확대 및 e-commerce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

- DSV의 솔루션 부문은 화물 관리, 통관 및 창고운영부터 정보관리 및 e-비즈니스 지원까지 전체적인 공급사슬상의 물류 솔루션을 제공함
  - 유럽 16개국에 운영하고 있는 130개의 창고를 통해 230만m<sup>2</sup> 규모의 창고공간을 제공함
  - 2013년에 중국과 미국에 독자운영이 가능한 창고를 건립했으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

## &lt;DSV의 유럽 창고시설 현황&gt;



자료 : Transport Intelligence.

- 2015년 1월 중국의 글로벌 단열재 제조회사인 ROCKWOOL은 중국에 신규 유통센터를 개장했으며 이를 운영하는 회사로 DSV가 선정되었음
  - 1만 3,000m<sup>2</sup> 규모의 창고는 북중국 건설 시장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텐진에 위치해 있음
  - DSV는 ROCKWOOL 생산 공장이 있는 광저우에서 2,400km 떨어진 텐진의 유통센터까지 도로와 해상을 통해 운송하게 됨
- DSV솔루션에서 중요한 부문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 e-commerce이며 2013년에 처음 서비스를 제공함
  - DSV는 e-commerce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재고량을 알 수 있고 주문 상태 및 추적정보를 알 수 있도록 통합된 IT시스템을 제공함
  - 2013년 9개국 21개의 사이트에 50개의 고객사를 유치했으며 5개 부문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함
  - 카테고리는 영국의 고급 숙녀화, 이태리의 자동차 교류발전기, 네덜란드의 게임장치 및 의약품 등임
  - DSV솔루션 부문의 201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% 증가했고, 2014년 상반기에 전년대비 2% 증가했으며 솔루션부문 사업의 다각화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

자료 : www.gscintell.com, 2015. 2.23 / www.dsv.com, 2015. 2.23 / DSV 2014 annual report.

김세원 연구원 (☎ 02-2105-2982, ksw@kmi.re.kr)

양규석 연구원 (☎ 02-2105-2928, yks8065@kmi.re.kr)

## 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## □ '15년도 아시아 e-commerce 시장의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는 물류 인프라

- 최근 수년간 아시아에서 급부상 중인 e-commerce 시장의 순조로운 성장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물류 인프라 공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
  - 물류시장 전문 컨설턴트 Mark Miller씨는 최근 국제물류 전문 전자매체인 Global Logistics Media의 기고문을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함
  - 특히 필자는 최근 e-commerce 시장의 급성장이 서구에 비해 교통 인프라와 물류 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 같이 전망함
  - \* 현재 아시아-태평양 지역의 B2C e-commerce 시장 규모는 1조5천억 달러로서 글로벌 시장의 35%를 점유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
- 아시아-태평양 지역 e-commerce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로는 새로운 중산층의 형성, 소비자 기호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지적되고 있음
  - e-commerce 시장의 팽창을 견인할 요인으로서는 신분 상승욕구가 강한 중산층의 출현, 서구 취향 등 소비자 기호의 변화, 인터넷 사용 및 휴대폰 사용에 따른 디지털화의 가속화 등이 꼽히고 있음
  - 특히 이와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e-commerce 시장 확대의 지속성 여부를 판가름할 최대 변수로 '중국 변수'를 꼽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
- 예컨대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팅 기관 매킨지는 인터넷 보급과 휴대폰 사용 인구의 급증으로 2020년까지 중국의 온라인을 통한 매출액이 6천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  - 매킨지는 인터넷 사용 인구, E-tailing의 시장 규모 등이 이미 미국을 앞질렀으며, 그럼에도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e-commerce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하며 중국 e-commerce 시장의 추가적인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음
  - Mark Miller씨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서도 지금까지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소비자들이 최근 들어와 인터넷 및 휴대폰으로 '무장'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미국 메이시스나 영국 해로드 백화점에서와 똑같은 구매 행위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강조함
-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시장 e-commerce 시장의 고속 성장은 낮은 창고 등 낮은 재고 관리 수준과 열악한 물류 인프라 체계라는 벽에 부딪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
  - 특히 e-commerce의 특성상 중요한 단품 배송, 벽오지 소비자에 대한 최종 인도 단계에서의 난점들이 물류비 상승을 크게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
## &lt; 중국과 미국의 인터넷 사용 비교 (2013) &gt;

| 소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국           | 미국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인터넷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| 사용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억3천2백만 명    | 2억7천7백만 명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험률 (penetration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6%          | 87%       |
| E-tailing                    | 시장 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천9백50억 달러   | 2천7백억 달러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매시장 점유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~8%         | 6%        |
| 최대<br>e-commerce<br>platform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타오바오 (T몰 포함) | eBay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급 품목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억 명         | 5억5천만 명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극적이 구매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억3천1백만 명    | 1억2천8백만 명 |
|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컴퓨터 등 최적화된<br>기기를 이용한 채택률<br>(cloud adoption) | 21%          | 55~63%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터넷을 통한 채택률<br>(중소 기업)                        | 20~25%       | 72~85%    |

자료 : McKensey&Company, *China's rising Internet wave: Wired Companies*, Jan. 2015.

자료 : [www.globallogisticsmedia.com](http://www.globallogisticsmedia.com), February 23, 2015.

박성준 전문연구원(☎ 02-2105-2973, [sjpark@kmi.re.kr](mailto:sjpark@kmi.re.kr))

## □ 일본 우정(Japan Post), 호주 물류기업 Toll 인수 발표

- 일본 우정(Japan Post Co., Ltd.)이 2월 18일에 호주의 Toll Holdings Limited의 지분 100%를 주당 9.04 호주달러에 인수할 계획임을 호주증권거래소(ASX)에 공시했음
  - 9.04 호주달러는 전날 종가 대비 49% 프리미엄을 추가한 수준이며 발행된 7억 1,740만 주를 곱하면, 인수비용은 약 65억 호주달러임<sup>3)</sup>
  - 일본 우정은 Toll의 주주회의, 호주 법원의 승인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거래를 완료할 계획임
- 인구감소 및 인터넷의 발달로 일본의 우편시장이 축소되면서, 일본 우정은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M&A 대상을 물색해 왔음
  - 일본 우정은 2014년 10월에 프랑스의 GeoPost 및 홍콩의 Lenton Group과 업무 제휴를 통해 국제 특송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으며,
  -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물류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호주의 Toll에 대한 인수를 추진했음
- Toll은 일본 우정의 한 사업부로 운영되나 Toll이라는 브랜드는 유지될 전망이며 Toll Holdings의 현 CEO인 Brian Kruger씨 또한 지위를 유지할 예정임
- 한편, 일본 우정(Japan Post Co., Ltd.), 유초은행(Japan Post Bank Co., Ltd.) 및 간포생명보험(Japan Post Insurance Co., Ltd.)의 지분 100%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우정 지주회사(Japan Post Holdings Co., Ltd)는 2015년 회계연도 말에 기업공개로 통해 민영화될 예정임
  - 일본 우정 지주회사의 민영화는 2012년 재추진 된 이후 일정이 조금씩 연기되고 있음
- 일본 우정의 M&A를 통한 해외진출 가속화 전략은 DHL 인수를 통해 거대 물류기업으로 성장한 독일 우정국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, 과정에는 일부 차이가 있음
  - 독일 우정국은 정부지분의 지속적인 시장매각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DHL의 지분을 확대했으나, 일본 우정은 기업공개 이전에 M&A를 실시하고 단번에 지분 100% 인수를 추진했음
  - 기존 해외 네트워크 및 해외 사업 경험 유무, 인수 대상 기업의 규모 및 내부 자금 사정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, 향후 일본 우정의 민영화 및 해외사업 확대 과정에 대해 귀추가 주목됨

자료 : Toll 그룹 공시자료, 2015.2.18.

송주미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72, [jmsong@kmi.re.kr](mailto:jmsong@kmi.re.kr))

3) 1 호주달러 당 95엔의 환율을 적용하면, 6,200억 엔 수준임

## □ DHL, 수에즈운하 확장 계기로 이집트 투자 확대계획

- 글로벌 특송 업체인 DHL의 CEO인 Ken Allen씨는 이집트에 대한 신규 물류서비스 제공 및 시장확대를 위해 카이로 국제공항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
  - Allen씨는 이집트 Ibrahim Mehleb 총리와의 회의에서 다음 달 개최 예정이고 해운·물류기업들도 참석하게 될 경제개발회의인 “이집트의 미래”를 언급하며 DHL의 투자 계획을 밝혔음
  - 또한 과거 다보스 포럼에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DHL이 경제개발회의 이후에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이집트에 필요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음
- DHL은 수에즈운하 확장 프로젝트와 관련, 신규 사업 개발 및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
  -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의 DHL CEO인 Nour Suliman씨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카이로 국제공항의 물류센터 확장은 물론, Egypt Post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서비스 제공 및 기술제휴, 노하우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음
  - 또한 이집트 항공과의 협력을 확대해 인접한 아프리카 국가 대상의 배송 능력도 강화할 계획임
  - DHL은 기업들이 이집트를 아프리카의 관문으로 간주하고 있고 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- DHL은 현재에도 이집트 시장에서 50%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의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
  - 최근 이집트 투자부 장관은 Egypt Post와의 협력시 이점을 언급하며 전자상거래를 지원해주는 회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기도 했음
  - 그리고 이집트 Mehleb 총리는 최근 이집트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도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정치적·경제적 로드맵이 완성되면 빈곤과 실업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음
  - DHL은 현재에도 약 4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장 확대에 따라 필요 인력도 점차 증원될 것으로 예상됨

자료 : www.dailynewsegypt.com, 2015.2.14.

이홍원 연구원 (☎ 02-2105-2897, hongwon@kmi.re.kr)

## □ CSCL 및 MCC Transport, 중-미얀마 직기항 서비스 개시

- 중국의 대 미얀마 교역량 증대에 대응하여 지난 1월 중국 국영선사인 CSCL과 머스크 라인의 자매회사인 MCC Transport가 중국-미얀마 직기항 서비스를 개시함
  -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, WTO에 따르면 2009년~2013년 중국과 미얀마간 교역량은 평균 16%씩 증가함
  - 한편 CSCL에 따르면, 2014년 중국과 미얀마간 물동량은 35만 TEU로 전년대비 30% 증가함
- 하지만 양곤항의 수심(7~8m) 제한으로 CSCL과 MCC Transport는 중-미얀마 직기항 항로에 소형선박을 투입함
  - CSCL은 Burma Express CMX 루트에 1,000TEU급 선박 4척을, MCC Transport는 Intra-Asia 5(IA5) 루트에 1,100TEU급 선박 8척을 투입함

### <CSCL의 Burma Express CMX 루트>



자료 : [www.cscl.com.cn](http://www.cscl.com.cn)

### <MCC Transport의 IA5 루트>



자료 : [www.oceaninsights.com](http://www.oceaninsights.com)

- 중-미얀마 직기항 서비스 개시로 환적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선적 스케줄의 예측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
  - 금번 직기항 서비스의 개통으로 상하이-양곤 운송시간은 CSCL의 경우 12~14일, MCC Transport의 경우 기존의 18일에서 13일로 각각 단축됨

자료 : [www.joc.com](http://www.joc.com), 2015.1.17/ [www.container-mag.com](http://www.container-mag.com), 2015.2.9.

고재성 연구원 (☎ 02-2105-2842, [jso@kmi.re.kr](mailto:jso@kmi.re.kr))

## 물류시장동향

## □ 몰타항, 2M 얼라이언스의 지중해 주요 허브항으로 선정

- 2M 얼라이언스가 지중해 주요 허브항으로 몰타항을 선정함
  - 2M 얼라이언스는 Maersk Line과 Mediterranean Shipping Corp.,이며, CMA CGM과 CSCL, United Arab Shpping Corp.이 속한 O3 얼라이언스 또한 주요 허브항으로 몰타항을 선정했음
- 몰타항은 최대 규모의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에게 필요한 인프라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몰타항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라고 밝힘
  - 몰타항은 다른 선사 얼라이언스의 몰타항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음
  - 몰타항은 전세계의 128개 항만과 연결이 되어있어서 효율적인 피더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
자료 : www.marinelink.com 2015.02.22

이하림 연구원 (☎ 02-2105-2954, harimyi@kmi.re.kr)

## □ 펠릭스토우항 확장에 200백만 달러 투자 예정

-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펠릭스토우항 확장에 200백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함
  - 항만 확장은 영국 동부의 발전과 정부 경제발전 계획의 일환임
- 확장 계획에 따라 열 번째 컨테이너 선석이 건설되고 대형 컨테이너 선박(Ultra large Container Vessels)에 대한 처리 능력이 늘어남
  - 항만 확장으로 2020년에는 처리능력이 600만TEU, 2030년에는 800만TEU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
  - 펠릭스토우항은 2014년 1월 40만 TEU를 처리하였고,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박(CSCL의 19,100TEU선박)을 수용할 수 있음

자료 : www.portfinanceinternational.com 2015.02.19

김주혜 연구원 (☎ 02-2105-4985, joohye915@kmi.re.kr)

## □ 청사 이전으로 인한 휴간공지

- 국제물류위클리의 발간기관인 <한국해양수산개발원>의 부산 청사이전으로 인해 2주간 국제물류위클리를 휴간하게 되었습니다.
- 3월 18일부터는 새로운 청사에서 발간하는 국제물류위클리를 송부해드리겠습니다.
-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### <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청사 전경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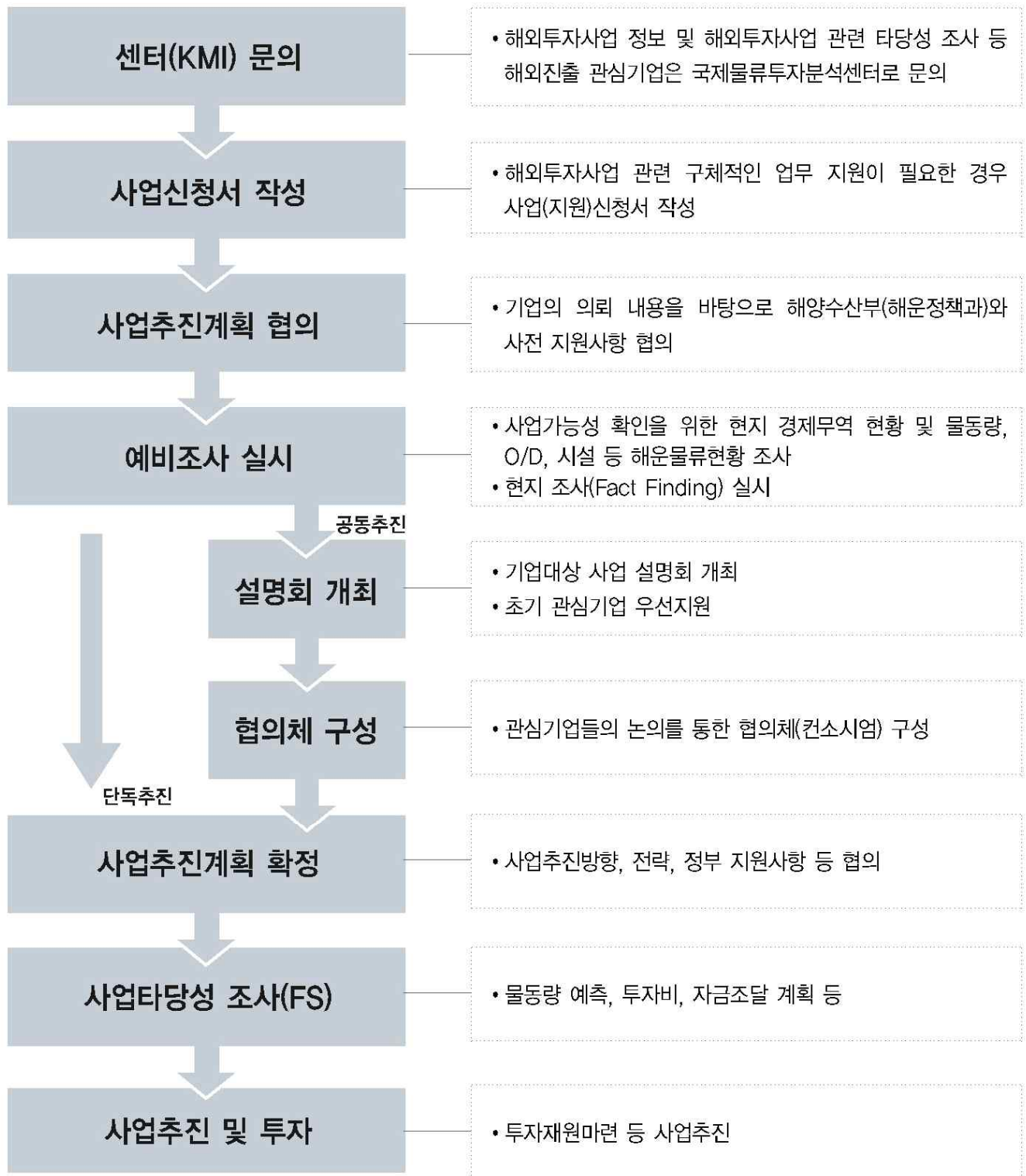
우편번호 : 606-080

도로명 주소 :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(동삼동, 한국해양수산개발원)

지번 주소 :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61 한국해양수산개발원

영문주소 : 26, Haeyang-ro 301beon-gil, Yeongdo-gu, Busan, 606-080 Rep. of KOREA

## 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

\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